

存在學의 概念

-形而上學 批評- ③

金基錫

存在를 그 자신의 性格에 잇서서 理解하려고 하지 안코 存在의 背後에 었던 『하나』가 잇다고 想定하는데서 그들의 存在에대한 思惟는 한 개의 形而上學에 떠러진다. 이제 이었던 『하나』를 다시 時間을 넘어서는 超越的인 實在로 想定하야 世界를 轉變을 모르는 『이데아』의 나라로 옮겨 놓는데서 그들은 이 形而上學을 存在대한 思惟와는 因緣업는 한 개의 樹林 속에 잇글어 버린다.

存在의 背後에 物質이란 것을 想定하는 이 돌이 잇다. 그들은 이 物質이란 것이 모든 存在를 이루고 그것을 지탱하는 存在의 唯一한 地盤이라고 가르친다. 이 物質이란 무엇인가. 처음부터 모든 存在의 地盤으로 가져온 것이매 모든 存在의 미테 그리고 모든 存在의 속에 잇는 었던 實體가 아니면 안된다. 自然을 낮코 生命을 기르고 그리하야 世界를 짜내이는 었던 實體가 아니면 안된다.

사람들은 이 物質이란 것을 모든 存在의 地盤인 唯一한 實在로 생각하야 온지 오래다. 그러나 人間의 思惟가 그러케도 오랜 동안을 어루만져 온 이 物質이란 것 마저 오늘에 이르러 오히려 더욱 잡을 길이 업는 안개 속엿 물 건으로 남겨잇지 안흔가. 이 物質이란 것은 모든 存在의 밋 바닥을 이룬다는 것을 그 자신의 드러난 徵表로 한다. 모든 存在가 모도 었던 하나인 質料로 만들어 졌다고 보더라도 우리들은 만흔 存在를 同一한 質料로 還元식혀 노코 이 形相업는 質料를 存在의 實體로 생각 할 길이 잇슬가.

存在는 『場所』에 잇서서 주어진다. 存在는 『場所』에 잇서서 서로 마조 서고 열매인다. 『場所』 속에 잇지 아니하고 『場所』에 잇서서 바더드러지지 안는 存在는 存在는 아니다. 存在가 『場所』에 잇서서 잇슴은 存在가 자기를 었던 것으로 限定하려고 때문이니 『場所』에 열매이지 아니한 채 모든 곳에 들어 잇는 存在는 었던 것인 存在는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存在를 『場所』에 잇

서서 理解하려고 하지 안헛다. 存在에 대한 思惟를 『場所』에 대한 思惟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안헛다. 存在가 『場所』에 있어서 서로 열매여 잇슴을 도로혀 存在의 唯一한 地盤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왔다.

存在와 『場所』를 갈러노코 存在와 『場所』를 갈러 늦는 일에 있어서 存在에 대한 思惟를 그릇치기 시작한 그들은 나아가 모든 것 속에 었던 『하나』가 들어잇고 이 었던 『하나』가 世界의 實體라고 하여 이것을 存在의 眞實한 地盤인 物質이라고 부르는 자리에 드러섯다. 存在를 그 자신의 性格에 있어서 理解하려고 하지 안코 存在의 背後에 었던 『하나』가 잇다고 想定하는데서 그들의 存在에 대한 思惟는 한 개의 形而上學에 떠러진다. 이제 이 었던 『하나』를 다시 『場所』에 열매이지 안는 絶對的인 實在로 想定하여 世界를 形相업는 質料의 마당으로 만들어 늦는 데서 그들은 이 形而上學을 存在에 대한 思惟와는 因緣업는 한 개의 臨野 우에 잇글어 버린다.

觀念論은 時間을 넘어서는 超越的인 實在를 말하고 唯物論은 『場所』를 버서나는 絶對的인 本體를 내여세운다. 이리하여 存在의 基本 性格인 時間과 『場所』를 바로 생각하지 못하는데서 하나는 『부드러운』觀念論으로 하나는 『사나운』觀念論으로 떠러진다.

觀念論이니 唯物論이 그 바라보는 方向은 다르다고 하드라도 그 생각하는 態度는 가튼 것이니 모도 었던 『하나』를 찾고 이 찾는 었던 『하나』가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넓은 것이라는 데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를 생각하는 希臘 哲學의 품안에 싸여잇는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입는데서 큰 것을 찾는 한 편에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큰 것에 대한 욕심을 부렸다.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으로 理解하기 전에 久遠한 것에 대한 욕심을 내엿고 열매이는 것을 열매이는 것으로 說明하기 전에 普遍인 것에 대한 심술을 부린 것이 오늘에 와서 人間의 思惟의 最大한 蹉跌인 두 개의 觀念論을 가져오고만 것이다.

觀念論과 唯物論은 었던 『하나』가 잇다고 외오친다.